

깊어진 의식, 더 멀리 뻗어가는 활동

영성 발전을 위한 노동교육

글 · 이현경 인성교육 강사

모든 혁명은 그 근원에서 영적이다.
내 모든 활동은 마음의 연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닌다.

- 비노바 바베



영성의 의미와 노동교육

앞에 제시한 비노바 바베의 말은 영성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별이는 어떠한 외부적인 활동도 그 사람의 내면 의식과 분리되어 일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내면의 의식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말한다. 18년 간 인도의 광활한 대륙을 걷고 또 걸으며 토지헌납운동을 벌여 500만 에이커의 땅을 빈곤한 소작농들에게 나눠주었던 이 혁신적 활동가는, 하루 종일 우물을 파느라 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해질녘에는 기도회를 이끌었다고 한다. 세상에 필요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근원적 에너지를 이성을 넘어선 영성의 깊은 우물에서 퍼 올렸던 것이다.

오랫동안 종교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논의되어 온 영성(spirituality)은 교육학을 비롯한 학문의 영역에서 여전히 낯설고 다루기 힘든 개념이며, 적대세력과 물리적으로 부딪쳐야 하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낯선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대적 세계관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다각화되면서 인간의 이성에 지나치게 기대는 합리주의적 실재관과, 인간을 물질과 정신, 혹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심신이원론적 존재로 인식하는 인간관의 한계가 자각되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생태주의적 관점의 발달로 인간이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자아 초월의 영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이며, 사회 및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이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심원한 이해가 발전하고 있다.

영성에 대해서도 종교적 맥락을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견해가 몇 가지 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육자인 파커 파머는 영성과 관련하여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넘어서는

어떤 것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영원한 갈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티스텔이라는 교육학자는 “영성은 자신의 전일성과 진정한 정체성을 향한 내적 여정이며, 종교적 전통에 따라 달리 부르는 초월적인 존재, 혹은 초월성과의 연결이고, 문화와 외부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이라고 하였다. 한영란은 “영성을 통전적으로(holistic) 이해하게 되면 몸과 마음, 육체와 심리적이고 영적인 부분과의 관계, 인간 상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 인간 성장의 모든 측면과 연결시키게 된다.”고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영성이 특정 신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나 가진 것이며, 이는 개별자로서의 자아(ego)를 넘어서 전체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상호연결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본다.

영성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시민교육이든 노동교육이든 영성 추구를 교육 목표의 하나로 삼을 수 있으나, 아직 영성 추구를 본격적인 목표로 삼은 노동교육 프로그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본래 영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노동교육기관들이 1970년대부터 노동자의 내면적 성장과 조직운동을 결합한 노동교육을 추구하면서 노동자들이 내면에서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 및 근본적인 초월성을 자각하도록 촉진해 왔다.

최근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일부 노동교육 전문기관도 전투적 노동운동가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노동자가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내면과 외면적 삶의 균형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보다 깊은 영적 성장이 통합된 전 인격적인 발달을 추구하기도 한다.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심원한 변화를 이끌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성 발전을 위한 노동교육 사례

파트너십 개발 프로그램

〈파트너십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파트너십연구소에서 천주교 관련자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시해 온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소는 2003년 2월 발족 이후 신부, 수녀를 포함한 서너 명의 강사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강사는 빈민, 노동, 가족, 부부와 관련된 영역에서 파트너십 교육을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사회의 권위주의적 질서를 파트너십적인 제도와 인간관계로 전환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한 주교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교육에서는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며, 권위적인 교회 및 사회 질서 극복을 위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본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3박 4일 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총 3단계 중에 1, 2 단계의 내용을 1박 2일로 압축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의 비중은 많지 않으며 개인 성찰 및 조별 나눔을 주로 하면서 자신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변화의 계획과 의지를 다지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처음에 권위주의적 제도와 태도를 이해한 후, 그 다음에 LSI 1, 2이라는 진단지를 통해 자기 태도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LSI 1, 2 진단지를 이용한 자기 태도 유형의 파악이다.

LSI 1 진단지는 자신이 자기 태도에 응답한 것인 반면, LSI 2 진단지는 그를 잘 아는 주변 5인이 그의 태도에 대해 답한 내용이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은 드러난 격차를 보며, 일종의 충격을 경험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

보다 깊은 자기 성찰을 위해 이어서 '내면의 소리' 과정을 하고 진단을 통해 드러난 태도 유형별 그룹을 나누어 이야기를 한다. 이때 노동자들은 자기 내면에 깊게 들어가서 자신의 태도가 어떤 원인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들여다본다.

뒤이어 '은총의 선물 찾기' 순서에서는 하느님이 개인마다 다른 달란트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다음으로 '시물레이션 작업'에서는 제시된 가상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과 그룹이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어보며 서로의 관계 방식을 들여다보고, 다시 자신의 태도가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그 후 '변화하는 지도자' 순서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하부구조를 정보 공유 방식, 의사소통 방식, 의사결정 방식, 역할 분담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 변화 방향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대인관계에서의 변화와, 교육이 끝난 후 일상에서 해야 할 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마무리 짓는다.

창조력 개발 프로그램

〈창조력 개발 프로그램〉은 주로 비정규직 빈곤 여성들을 위해 한 여성전문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6~7회의 시리즈 교육으로 실시되는데, 2006년에만 해도 연인원 306명, 총 19강 54시간 진행되었다.

이는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창조력 개발 방식에 기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자 자신이 1997년에 이 워크숍을 경험하고 자기 변화에 커다란 도움을 받으면서 IMF 이후 실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창조력 개발 프로그램〉은 특히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일상에서 자기를 신뢰하고 힘을 갖고 살도록 자기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여기서 창조력의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현실화하는 내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뜻한다. 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내적인 욕구를 새롭게 인식하며, 표출된 욕구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창조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 1회 각 2시간 ~ 2시간 30분씩 창조력을 키우는 기본 원칙: 자기 긍정 강화하기, 자기 신뢰 회복하기: 나의 욕구 알기, 자기 감정 회복하기: 창조적 U턴 하기, 신념 되살리기: 성공적인



대화법 프로그램 중 카드지에 쓴 소감 나누기(왼쪽)과 조별 나눔의 시간(오른쪽)

목표 관리, 창조적 풍성함 되살리기: 풍요로움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 자율성 되살리기: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시간 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인 것은 교육 기간 동안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자기와 데이트를 하는 '아티스트와의 데이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쓰는 '모닝 페이지' 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 과제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변화를 감지하고 확인하게 되므로 성장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혼자서도 자신의 긍정성을 찾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기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대화법 프로그램

〈대화법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강사가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진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2000년대 초반 한 문화센터에서 운동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6회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바 있고, 그 후 2년 4학기제인 한 대학교의 노동교육 프로그램 중에 매 학기 입학연수로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이다.

〈대화법 프로그램〉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연습하고 체득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화의 기법에 중점을 두기보다 참가자들 사이에 솔직한 개방을 통한 교류,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관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대화법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에게 소통과 교류의 마음가짐이 생기도록 색지 네 칸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 자신을 소개하는 '마음을 여는 네 개의 창' 순서로 시작한다. 두 번째 '칭찬하기'에서는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 관계맺기'가 어떠한 것인지 경험한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듣기'라는 경청 훈련은 세 가지 모드의 듣기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듣는지 직접 체험하고 알아차리도록 한다. '나 - 전달법'에서는 비난과 공격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연습하며 평소 자신의 말하기 스타일이 갖는 문제를 돌아본다. 다섯 번째 '피드백 듣기'에서는 공감적 경청을 해줌으로써 타인과의 감정적 교류와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관계를 경험한다. 마지막 '성장계획 세우기'에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과 조직의 변화 계획을 만들어 보고, 이



대화법 프로그램 과정에서 개인 소개 후 조별 통합 작업을 하는 참가자들

를 구체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힘겹고, 서로 말로 공격하고 상처 받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 소통 방식의 문제로 인한 아픔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통 문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칭찬하기’는 칭찬을 주고받는 경험 속에서 자신의 인간관계 방식을 돌아보고 긍정적 관계맺기의 가능성을 조망하게 만든다.

영성의 변화,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

깊어짐으로써 넓어지는 노동자들의 변화

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외면적인 삶과 내면적인 의식 두 측면에서 통합적인 변화를 보인다. 외면적인 삶의 변화는 일과 노동조합 활동, 가족 및 인간관계, 개인적 일상생활의 세 측면에서 드러난다.

노조 활동에서는 적극성과 주인의식을 발휘하게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부딪칠 때도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자신의 문제도 솔직히 시인하게 된다. 이로써 서로 전면적인 갈등으로 나가지 않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가족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들과 보다 공감하며 책임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게 되며, 말하는 방식에서 화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칭찬하는 변화를 보인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몸풀기나 명상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짬을 내어 산책을 하는 등 내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예전보다 의식적으로 삶을 성찰하고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책들을 읽기도 한다.

내면세계에서도 노동자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우선 감정적인 측면에서 자기 긍정성과 자신감이 향상되어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예전보다 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자기 성찰의 능력이 생기면서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를 때 이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그럼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그에 분노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며 성장의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수의 노동자들은 내부로부터 근본적

인 존재와의 연결을 확신하면서 이를 다른 동료나 외부 사물과의 상호연결성으로 심화시키기도 한다.

아주 감동적인 변화의 사례가 있다. 홀로 사는 중년의 비정규직 여성 한 분은 일생 동안 자기를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 본 분이였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전깃불도 안 켜고, 보일러도 안 틀고, 이불을 몇 겹 깔아놓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자곤 했다. 그러다가 <창조력 개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을 보살피고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기와 보일러를 틀게 되었다. 또 그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자기 긍정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고양되면서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 모두가 깊게 변화됨으로써, 함께 교육에 참가한 다른 동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은 곧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에너지와 상호 연결감으로 확장되므로, 이것이 영성 발전의 기초가 된다.

시민교육에 던지는 메시지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현대사회 및 노사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노동운동 내부의 차이를 존중하고 조율할 수 있으며 다른 운동 영역과 깊이 공감하고 협력하면서 대안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는 다른 정파나 부문 운동의 의견을 포괄하는 관용의 마음과 공감적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돌봄의 마음,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 등이 활동가들의 인격에서 우리나라 다른 부문 운동과 연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모으며 사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영성이라는 내적이고 깊은 측면의 변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비노바 바베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평화운동가인 박성준이 간디가 중요한 사회적 행동을 앞두고 반드시 명상, 기도, 혹은 단식을 했던 것을 예로 들었듯이, 우리의 시민운동,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도 깊은 영적, 정신적 힘이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의식이 영성적 차원까지 깊어지면 이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와 활동 의지는 존재계 전체로 더 멀리 뻗어가게 된다.

노동교육의 세 프로그램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깊은 내적 성장을 위한 우물을 파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성과는 아직 작지만, 시민교육의 영역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깊다.

* 여기 소개한 세 가지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노동자들의 변화를 증언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 논문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 인성교육 과정의 전환적 특성 연구」, 이현경(2009),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